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보 도 자 료 2013. 3. 18(수)	담당자	구 미 영 부연구위원(3156-7031)
	홍보담당	황 애 리 (3156-7296)
	보도일자	2013.3.19(목) 조간부터
	※ 총 8쪽 (붙임 포함) www.kwdi.re.kr	

새 정부 여성 · 가족정책, 어디로 가야하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새 정부 여성 · 가족정책의 방향과 입법 과제” 주제로
2013년 제1차 젠더와 입법 포럼 개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최금숙)은 오는 3월 22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새 정부 여성 · 가족정책의 방향과 입법 과제” 를 주제로 2013년 제1차 젠더와 입법 포럼을 개최한다.
- 이번 행사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김상희)가 후원하며, 국회 미래여성가족포럼(대표의원 류지영), 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대표의원 남인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고현욱), 한국젠더법학회(회장 김엘림),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삼화)와 함께 공동개최한다.
- 최금숙 원장은 “여성대통령 시대를 맞아 새 정부 여성 · 가족정책의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포럼을 통해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여성 · 가족정책 방향과 입법과제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행사의 개최의의를 밝혔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정부정책 및 사회 현안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젠더와 입법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 젠더와 입법 포럼은 정책연구 단위(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젠더법학회)와 입법 관련 단위(국회미래여성가족포럼, 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 국회입법조사처), 그리고 여성 관련 법조실무 단위(한국여성변호사회)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주관, 주최하는 행사이다.
- 젠더와 입법 포럼은 실효성 있는 여성·가족정책이 입안, 실행 되려면 구체적인 입법과제가 도출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논의의 장으로 정책연구에서부터 구체적 입법과제 발굴, 제도 설계까지 연결되는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2년에는 총 3회에 걸쳐 개최되었다.
- 특히 2013년에는 이번 제1차 젠더와 입법 포럼을 시작으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기여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정책방향 및 입법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
- 이번 포럼의 목적은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새 정부의 여성·가족정책 방향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입법과제를 논의하는 것이다.

<행사 개요>

- 새 정부의 출범 초기는 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여성·가족정책의 입안 여부가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올바른 여성·가족정책이 설계, 시행,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과제와 전략의 모색이 필수적이다.

- 이번 포럼에서는 김엘림 한국젠더법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인권·안전정책센터장이 “새 정부 여성정책의 방향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장혜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사회통합정책연구실장, 박복순 연구위원, 송효진 연구위원이 “새 정부 가족정책의 방향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 주제발표 후에는 김현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이경환 변호사 (한국젠더법학회 이사),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사회권위원장,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주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붙임 1. 발표요약본

붙임 2. 프로그램

붙임 1 발표요약본

새 정부 여성정책의 방향과 입법과제

박선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인권·안전정책센터장)

- 본 발제문에서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여성에게 직·간접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과제를 중심으로 새 정부의 여성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입법과제를 살펴 보고자 함.
- 새 정부의 여성관련 국정과제로는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이 있음.
-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는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우리나라의 경제적 도약을 위해서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며, 성폭력, 가정폭력 등 젠더에 기반한 폭력으로부터 여성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조성 및 법제도적 장치마련은 국가의 책무로 그 필요성은 부언을 필요로 하지 않음. 그리고 새 정부의 노동, 복지 분야 등의 국정과제는 여성을 특정하고 있지 않지만 직·간접적으로 여성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새 정부의 여성 관련 입법과제는 다음과 같음.
 - 여성의 사회·경제 참여 확대를 위한 입법과제
 - ① 유리천장 해소
 - 정치부분 : 여성할당제 의무화 및 제재 수반 강화, 여성장관 비율 확대
 - 행정부분 : 4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목표제 규정, 여성승진목표제 조항 신설, 정부위원회의 여성비율 확대
 - 경제부분 : 여성임원 목표제 조항 신설, 공공기관 임원 및 운영인력 성별 현황 공시 및 양성평등 임원목표제 규정 신설
 - ② 여성의 경제활동촉진
 - 양질의 일자리 - 비정규직 문제 해결
 - 돌봄노동의 제도화
 - 일-가정 양립지원 강화

- 성평등 추진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
 - ① 「여성발전기본법」 전면 개정
 - ② 가칭「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와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등
- 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입법과제
 - ①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기본법」 제정
 - ②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내실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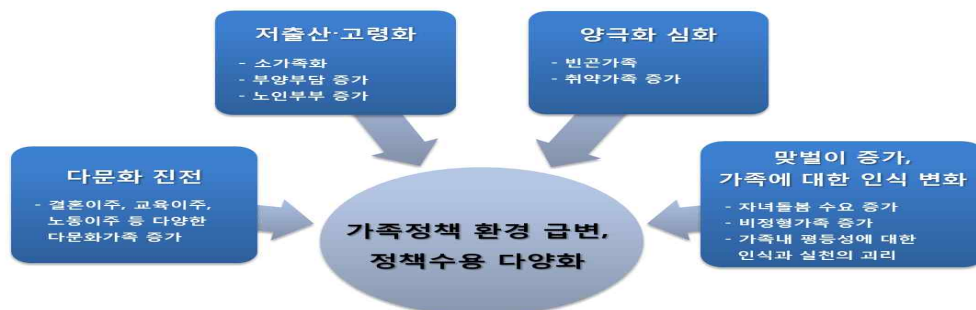
새 정부 가족정책의 방향과 입법과제

장혜경(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사회통합정책연구실장)

박복순(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송효진(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본 발제문에서는 가족정책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하여 국정과제를 조명하고 가족을 둘러싼 정책환경 및 정책수요 진단을 통해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함.
- 새 정부의 가족정책 관련 국정과제는 가족정책의 핵심인 자녀양육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담고 있으며 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공’ 과 ‘저출산 극복과 여성경제활동 확대’, 그리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 에서 관련부처의 정책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이 특징임.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정책 간 연계와 관련 부처와의 협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내포하고 있음.
- 현재 우리사회의 가족정책 환경의 특징으로는 크게 ①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다문화 등 지속·심화 ② 맞벌이가구 및 비정형가족 증가, 가족에 대한 인식변화 등 가족내부 변화의 지속화·고착화 추세를 들 수 있음.



〈그림 3〉 정책환경 변화와 주요 정책수요

- 가족가치 확산 및 가족위기에 대한 개입을 통해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기능 회복을 목표로 삼고 있는 새 정부의 가족관련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 및 입법과제는 다음과 같음.
 - 가족가치 확산
 - 가족해체 등 위기가족 지원 강화 : 가정법원, 지방법원과 연계한 이혼신청 가족대상 가족기능 회복 지원, 양육비 지급 이행 효율화 방안
 - 취약가족의 가족기능 회복 및 자립강화 :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 다문화가족 적응지원강화
 - 다문화가족의 취약계층화 방지
 -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 강화
 - 자녀 양육을 위한 지원 강화
 - 무상보육 무상교육 확대 관련 법률 정비
 -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 방과후 돌봄 : 학교내 돌봄 강화
 -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의 조성
 - 가족정책추진 기반 강화

붙임 2 프로그램

□ 추진배경

- 새 정부의 출범을 맞이하여 새 정부 여성·가족정책의 방향을 확인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여성·가족정책 방향과 입법과제를 제안하여 정책 및 입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일시 및 장소

- 일 시: 2013년 3월 22일(금) 오후 1:30~5:00
- 장 소: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

□ 포럼주제

- [2013년 제1차 젠더와 입법포럼]
새 정부 여성·가족정책의 방향과 입법과제

- 주 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주 최 : 국회미래여성가족포럼, 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젠더법학회, 한국여성변호사회
- 후 원 : 국회여성가족위원회

□ 프로그램

시간	식 순
13:30-14:00	<p>개회식</p> <p>사 회 : 이인섭(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p> <p>개회사 : 고현욱(국회입법조사처장)</p> <p>환영사 : 류지영(국회미래여성가족포럼 대표의원)</p> <p>남인순(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 대표의원)</p> <p>최금숙(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p> <p>축 사 : 김상희(국회여성가족위원장)</p>
14:00-15:00	<p>좌장 : 김엘림(한국젠더법학회장)</p> <p>제1주제 : 새 정부 여성정책의 방향과 입법과제</p> <p>발표 : 박선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인권·안전정책센터장)</p> <p>제2주제 : 새 정부 가족정책의 방향과 입법과제</p> <p>발표 : 장혜경(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사회통합정책연구실장)</p> <p>박복순(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p> <p>송효진(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p>
15:00~15:30	휴식 및 다과회
15:30-17:00	<p>지정 토론 (가나다순)</p> <p>김현숙(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무총장)</p> <p>이경환(한국젠더법학회 이사, 변호사)</p> <p>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p> <p>정문자(한국여성단체연합 사회권위원장)</p> <p>정재훈(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p> <p>조주은(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p> <p>청중과의 토론</p> <p>폐회</p>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국책연구기관이다. 현재 한국의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 능력 개발, 여성 연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 증진과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법령, 정부정책 등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고 정부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983년 개원한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2007년 5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바꾸고,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Tank 역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